크레이그 키너 박사, 로마서, 강의 18,
로마서 16:21-27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로마서 16:21-27의 18회기입니다.

우리는 Paul의 마무리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마무리 과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또한 이 세션의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귀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 다음 계속해서 사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유쾌한 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한동안 즐거울 것입니다. 동료들에게 인사드립니다(16장 21절부터 23절).

그것은 일반적인 서신 관습이었습니다. 칼빈 칼리지의 제프리 와이마(Geoffrey Wyma)는 서신 종결, 고대 편지 종결에 관해 글을 썼는데, 이는 인사를 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동료들에게 인사 등을 합니다.

글쎄요, 그 당시에는 우편 서비스가 없었어요. 로마 군대에는 유일한 우편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것은 민간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편지를 보내고 싶다면 여행 중인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면 됩니다.

자, 당신은 키케로가 보낸 이런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보낼 편지를 준비한 다음 다른 것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는 아니, 아니, 곧 떠날 테니까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면 다음 여행자에게 보낼 편지를 봉인해 두었습니다. 누군가 오셔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항상 여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음, 이 편지는 로마로 갑니다. 사람들도 이를 이용하여 인사를 보낼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고린도에 있었던 로마 사람들 중 일부에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 중 일부는 아마도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인사를 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나중에 로마와 함께 바울을 만나러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21절에서 디모데에게 문안합니다.

사실, 디모데는 바울의 주요 제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은 그를 그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맥락에서 그는 당신에게 많은 교육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르치고 초보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아버지는 한 분뿐입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많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내 길을 걷는 디모데는 나를 본받는 법을 그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버지처럼 징계하는 막대기로 그들을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16:10, 그는 디모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2:19-22, 우리는 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2.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과 정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여행할 일행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16장 21절에도 고린도에서 문안합니다. 우리 제이슨과 소시파터.

글쎄, 우리는 사도행전 17:5-9에서 이 야손이 아마도 같은 야손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제이슨입니다. 야손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집주인이었습니다.

Sosipater는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름 중 하나입니다. 더 짧은 버전은 Luke-Sopater입니다. 실제로 더 긴 버전이 더 기술적인 버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버전이 더 기술적인 버전입니다. 그러나 소바더라고도 알려진 소시바더는 사도행전 20:4에 나오는 마케도니아 베뢰아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마게도냐 사람들이요,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내려와 고린도에 왔듯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헌금을 위해 그와 함께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들은 마케도니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도행전 20:4. 또한 우리는 그와 함께 아가야로 갈 마케도니아 사람들에 대해서도 읽었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이다.

고린도후서 9:4, 고린도전서 16:13. 또한 그는 루시우스를 언급합니다. 이제 그 이름은 사도행전 20:4의 사신들 사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루크인가요, 아니면 특사가 아닐 수도 있나요? 어쩌면 고린도의 현지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누가는 사도행전 20:5-6에서 빌립보 그룹에 다시 합류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는 자신보다 먼저 인사를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루시우스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4절, 골로새서 4장 11절의 맥락에서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의사 누가는 이방인이다.

그리고 그것은 적합합니다. 그 구절은 나중에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도행전의 서술자에게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루시우스는 누구입니까? 어쩌면 그는 루크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는 단지 고린도교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여행팀의 일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6장 22절. 서기관 더디오가 문안합니다.

그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로 나이며, 당신에게 안부를 전한다'고 말한다. 이 사람은 그 집 가족 중 셋째로 태어난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가능성과 끝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지만 이 경우에는 그가 이 집의 셋째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Tertius라는 이름을 얻는 방법입니다. 문맹자들에게는 서기관, 그들을 도와줄 마을 서기관이 필요했습니다.

때때로 마을 서기관들은 글을 거의 읽을 줄 몰랐지만 글을 쓰는 데 도움을 줄 서기관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이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보다 글을 더 잘 아는 서기관들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읽기와 쓰기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대인 중 약 10%만이 글을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지만, 읽는 능력의 수준은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게다가 장소마다 다릅니다.

학교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또한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아마도 고린도에서는 30%일 겁니다.

그리고 읽고 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때때로 실제로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서명해야 할 때 일부 파피루스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는 것은 일종의 X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 문구가 있거나 이러한 법률이 게시되어 있으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같은 것을 읽으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읽어주는 것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그들에게 읽어주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들에게 읽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유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었지만 서기관을 구할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도로 교육받은 노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서기관 노예가 많았는데, 그들 대부분은 그리스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전문적인 무료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더디오의 경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의심할 바 없이 신자였기 때문에 문안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23절의 구아도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아마도 그는 집안의 넷째 남자일 것이고 아마도 더디오의 형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둘이 함께 언급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넷째 남자는 Tertius와 같은 로마 이름입니다.

로마식민지이자 로마시민이 많았던 고린도에서는 로마식 이름이 그리 흔하지 않았다. 교회의 주인인 가이오, 16:23 처음에. 의심할 바 없이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오는 가이오와 동일하지만, 신약성서의 모든 곳에서 등장하는 가이오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이우스는 매우 흔한 로마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고린도의 가이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 역시 논쟁거리이다. 제가 이것이 논쟁의 문제라고 말할 때, 저는 단지 몇몇 다른 측면에 공정하게 대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경우처럼 나는 무엇이 절대적으로 사실인지에 대해 확고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코린트 외곽에 큰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로마의 아파트를 언급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발굴된 일부 주택은 연회장, 트리클리니움, 그리고 지붕의 빗물이 중앙에 모이는 임루비움이 있는 외부에 더 큰 아트리움이 있는 훌륭한 로마 주택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있더군요. 그리고 아마도 40, 50명 정도가 모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시점에는 고린도 교회에 40, 5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전체 교회의 주인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그곳은 고린도 밖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부지에 있을 수 있는

큰 빌라에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산책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항상 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쩌면 교회가 함께 모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모임과 달리 일반적으로 그들이 다루게 될 가장 큰 집은 고린도의 부유한 교외 지역인 두개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겠죠.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은 교회의 주인에 의한 것입니다. 그는 교회의 주인과 나 자신의 주인이 원래의 주인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8.7, 디티우스 정의. 이제, 티티우스 정의(Titius Justice)는 그의 삼위일체에서 이 로마 시민의 이름 중 두 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글쎄요, 가이우스는 이름이자 대표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가이오 디티우스 정의(Gaius Titius Justice)일 수 있었으며, 이 경우 그는 교회가 회당에서 나간 후 교회의 원래 주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여자들이 교회 발코니에서 질문을 외치는 것이 문제라는 해석을 들어보셨다면, 그 당시 회당에 발코니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른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층이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축학적 증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고학적 증거는 그것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후기 중세 관습이었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그것 역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는 교회가 회당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집에서 모이는 것이었고 집에는 발코니가 없었습니다. 보통 그들은 아트리움 같은 것을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교회가 더 성장하기 전의 원래 주인이었던 Gaius Titius Justice의 집일 것입니다.

아니면 단지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가 Paul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과장법은 다양한 고대 작가들에 의해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많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면 바늘구멍으로 낙타를 짜내보세요. 사실 그 당시에는 문자 그대로 바늘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이 문자 그대로의 바늘이 아니라 단지 예루살렘의 문이었다는 생각을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문은 중세의 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좋아요. 에라스도(23절). 그는 보조원이었을 수도 있고 당시 라틴어로 a-dee-lay로 발음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지 그것을 이상형으로 발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이상주의와 혼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냥 조력자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력자 또는 조력자는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선출해 주시면 시에 기부하겠다는 식으로 자금을 약속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선출된 방법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세대에서 생각하는 이 고위 관리인 에라스도에 관한 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로마서 16 장 23절에서 우리는 도시 재무관 또는 도시 관리인 에라스도에 대해 읽습니다. 같은 사람이 아닐까? 글쎄요, 동일 인물이 아니라면 정말 놀라운 우연일 것 같지만, 이것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이코노모스라는 용어가 보조원으로 번역될 수 있거나 나중에 그가 보조원이 되었을 때의 디딤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리더 역할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보조자 에라스도가 이곳과 다른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조도사가 된 사람이라면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후원자로서 그곳에서 가르침의 일부를 후원하고 있다고 인사를 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1절에서 아시아 족장들에 대해 읽은 것과 동일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친구였습니다. 글쎄, 친구는 동료를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예술 후원자 또는 에베소에서 매우 유명한 교사의 후원자처럼 후원자 또는 후원자인 누군가에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9장 31절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단지 후원자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는 잘 지내고 있으며,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이 그룹의 로마에 있는 병행 공동체에 안부를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22절에서 우리는 에라스도라는 신자에 대해 읽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파견된 것으로 보아 바울과 함께 여행했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일 그가 고린도 출신이었다면 그는 이미 바울과 함께 먼 길을 여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저 사람이 여기와 같은 에라스투스라면, 그도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여행을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관리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공공의 노예가 되어 그 직분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은 조력자를 로마에 있을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면 미안하지만 이 경우에는 고린도에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공직 선거 운동이나 선거 운동 때문에 많이 여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공동체의 총애를 받지 않는 한,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많은 의무를 져야 합니다. 아니면 그는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 독립적으로 부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고 다른 것들은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에라스투스를 매우 예외적인 개인으로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사회 계층이 낮은 사람들과 함께 여행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승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에라스도가 그렇게 예외적인 사람이었는지 아닌지입니다.

그가 보조원이라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그 사람도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서 그를 고린도에 남겨 둡니다. 글쎄, 우리는 이것에 대해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보다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마도 도시 관리자이자 조력자였던 에라스투스와 동일하지만 그는 후원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신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도행전의 에라스도와 조화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에라스투스라는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세 가지 다른 에라스테스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른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마지막 찬양은 사도행전의 진정한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 11장까지, 특히 11장 1절부터 32절을 찬양의 송영으로 마무리한 것처럼,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를 마지막 찬양으로 편지 전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Pauline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는 편지 초반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토론하는 텍스트상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로마서의 원래 결말이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추가되었습니까? 나는 그것이 원래 Paul에게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수사적으로 사물을 디자인하는 방식에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서기관이 추가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로마에 직접 도착한 후에 나중에 그것을 추가하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폴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15장 14절부터 33절까지는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편지에 나오는 내용을 반복합니다.

음, 여기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전 개념, 특히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회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텍스트 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이것이 편지의 원래 부분이었나요?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 비평에 관해 설명해야 합니다. 복사하는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누군가 그것을 복사해서 몇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복사하면 다른 실수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복사하면 다른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사본을 기반으로 한 모든 사본에는 원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첫 번째 사본의 실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사본에 실수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자, 본문 비평에 익숙하지 않거나 성경에서 본문 주석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이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으며 그들은 이것에 대해 가장 가능성 있는 읽기가 무엇인지 알아냅니다.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정확하게 복사했어야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확하게 복사한 것도 있습니다. 글쎄, 다른 것들이 잘못 복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들을 복사하고 실수를 하는 것뿐입니다. 왕실에서 무엇인가를 복사했는데 실수를 하면 그것을 파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표준화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서가 궁중에서 그런 식으로 표준화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제3 칼리프 시대, 즉 어쩌면 그 책이 구전된 지 한 세대 뒤인 시기에 표준화된 문서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나중에 표준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성서의 경우에는 궁중에서 복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박해를 받는 조건에서 복사되었습니다. 우리는 메시지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 특정 그룹에게 있어서 성서가 신성하다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원어로 암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인의 경우, 텍스트성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텍스트의 메시지, 즉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텍스트의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손상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본문의 문제와 상관없이 본문의 메시지를 어느 정도 자세히 설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는 텍스트 문제가 아니었고 다른 종류의 문서에서도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해석의 불확실한 수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성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본문 변형은 사소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소한 종류의 문제를 다룹니다. 신약에는 긴 구절이 두 개밖에 없으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9-20절을 알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신약학자들은 그것이 아마도 원문의 일부가 아닐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실 나는 주제를 완전히 바꾸는 요한복음 7-53장부터 8-11장까지의 요한복음보다 이 요한복음에 대해 좀 더 낙관적입니다. 여담이 아니라 실제로는 축제의 마지막 날이라는 측면에서 맥락을 방해합니다. 다음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본문적으로만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용어, 즉 공관복음에서 사용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실화일지도 모릅니다. 두 경우 모두 초기 전통을 반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Old King James 이외의 번역본이 있는 경우 번역 노트에서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요한일서 5장 7절이 있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이 주로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본문의 특정 판에서 번역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라스무스는 원래 그것을 생략했습니다.

라틴 벌게이트를 읽는 몇몇 사람들은 '보라, 여기 라틴어로 나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어 본문에서 이 단어를 제외했습니다. 그는 “나는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글쎄, 사실 그게 문제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가 삼위일체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어떤 경우에도 내 원고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원고 하나를 보여주시면 제가 넣어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들은 원고를 찾았습니다. 그 때를 위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반칙을 의심한다고 설명하는 긴 각주와 함께 거기에 넣었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다음 판에서는 그 부분을 생략했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그 판에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구절과 같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날의 번역은 실제로 최초의 킹제임스 성경에는 실제로 일부 텍스트 정보가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인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상당한 텍스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여기서의 텍스트 질문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다수의 원고에 있지만, 어쨌든 그것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부 사본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지막 찬양이 있고 일부 사본에는 1423년 이후에 있거나 여기와 1423년 이후에 있습니다.

글쎄, 그들은 초기 사본의 약간의 혼란으로 인해 1423년 이후에 그것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Marcion은 1423년에 끝났지만 Marcion은 극도로 고독한 목소리였습니다. 내 말은, 그는 로마 제국이나 다른 어느 곳에서도 대다수의 교회를 대표하여 연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본에는 이 내용이 생략되어 있지만 초기 사본에는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지리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본문 비평에 대해 많이 모른다면, 그 중 하나는 당신이 그것을 여러 다른 장소에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나타나는 다른 장소보다 늦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그것을 복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지아나 아르메니아 교회는 로마

교회에서 그것을 복사하지 않았고, 콥트 사본은 확실히 비잔틴이나 그와 유사한 것에서 그것을 복사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광범위한 지리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상당히 균등하게 나누어져 있지만 로마 학자들은 본문 비평가 이상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편지는 아마도 16:23의 콰르도에게 보내는 인사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6:24은 실제로는 나중 판이지만 어쨌든 16:25부터 27까지입니다. 여기서는 내 논평에서 이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제가 PowerPoint 슬라이드를 끝냈을 때가 새벽 2시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좌는 2주 만에 세 번째 강좌이므로 마지막에는 슬라이드 몇 장에 제 논평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복음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능력이 있으시다. 이것은 로마서의 이전 요점을 연상시킵니다. “나는 너희가 굳게 서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노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는 16:25에서 나의 복음을 말한다. 앞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섬기며 그 복음을 그들과 나누고 싶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16:25), 그는 편지 초반부에서 자신의 설교에 대해 말했습니다. 16장 25절의 복음 비밀의 계시, 글쎄, 앞서 그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 말했습니다. 1625년 이방인 포함의 신비, 그는 앞서 이방인이 어떻게 포함되는지에 대한 신비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드러났느니라, 파네라오. 이제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났으니, 3:21. 그리고 바울의 좋은 소식은 이미 선지자서 1장 1절과 2절에서 약속되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고 1장 17절에서 계시를 위해 묵시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1626년의 모든 민족 가운데 믿음의 순종이며, 1장 5절과 15장 18절의 목적은 조금 더 짧은 공식이지만, 목적은 모든 민족 가운데의 믿음의 순종이다. . 그리고 그는 일부 장, 특히 6장부터 8장까지 순종에 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에서 14까지의 특정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16:27.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11:36) 그의 지혜가 뛰어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작품이 끝날 때를 포함하여 적절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카베오서 4장에서 그것을 봅니다. 우리는 유다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을 봅니다. 물론 아멘은 찬양에 가까운, 어떤 책에 가까운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때때로 서기관들은 단지 "예, 나는 여기에 쓰여진 내용에 동의합니다"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추가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어쨌든 이 편지에서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에 대한 바울의 빈번한 관심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도록 역사를 마련하신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하나님께 대한 마지막 찬양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메시아 예수 안에서.

이 송영에서 바울은 1장 16절과 1장 17절보다 훨씬 더 분명한 어떤 점에서 이 유명한 편지를 하나로 묶는 몇 가지 주요 주제를 함께 묶습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분이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 화목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로마서 16:21-27의 18회기입니다.